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 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안간힘 쓰지 말고 그냥 여여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땀은 흘린 간에 그것도 마음이겠죠. 하여튼 마음이란 그늘이 바로 부처라고 불리죠. 참 어떤 때 생각하면 재미도 있어요. 정히 땀다 싶으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요. 또 정히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나무 밑으로도 들어가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몸뚱이가 어찌 더움이 가셔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가 이러시겠죠? 거짓말이라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이 모두가 마음으로써 빛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몸뚱이도 마음으로써 빛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땀방울이 하나 나오면 뿜, 셋이 따라 나오죠. 그런데 뿜, 셋 나오는 땀방울을 하나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이 법이랍니다. 제일 첫째로,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 몸뚱이아 하나의 개체에 내 불국토를 건설할 수가 있어야 바깥의 불국토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시에 학습적인 것이라든가 팔만대장경에 관련된 법문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문이 나를 깨우쳐 주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의 이름을 찾으면서 믿는다고 입으로만 되풀이하는 게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나를 나오게 해 준 그 자체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근본이기 때문에, 육의 부모와 법의 부모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부모를 육의 부모와 동시에 같이 믿는다는 이런 게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비록 작고 소박하더라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육의 부모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 법의 부모는 수억겁을 거쳐 오

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문제라는 것은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을 말하는데 인과성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인과를 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균성을 많이 맺어 놓은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해쳤다가나 살생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된 인연들이 많죠. 세균성이라고 하는 것도 살생과 더불어 원한의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뽕소굴에서 뽕들을 때려잡는다거나 그랬다면, 임신을

질 수가 없습니다. 유전성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인과성이든지 이 공부 안 하면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항상 하죠. 거기서 나온 거라면 거기서 대처를 해야지 어디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구멍도 그 구멍, 드는 구멍도 그 구멍, 우리가 숨을 쉬었으면 숨을 쉰 그 자리에서 숨을 또 내쉬지 딱 자리에서 숨이 나오는지 모르겠는가?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한 숨구멍이죠. 그렇듯이 마음이 들고 나는 자리

를 내가 딱치는 대로 거기다 놓으니까 차례차례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 지손 대에도 그렇고 다시 바뀌지는 거죠, 아주 그냥. 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뀌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보면 모든 일체 목신(木神들, 즉 말하자면 식물들과도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통신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다 하면 그 모든 통신을 엮어 주는 웹버튼 말입니다. 위에서 과거로 미래로 현재로, 돌 아니

든 말든, 배가 없어지겠으면 없어지고 말겠으면 말고 딱 그냥 '어허, 내가 공(空)했는데 배를 탄 거는 어딴으며 배를 안 탄 거는 어딴겠느냐? 파도친 거는 또 어딴겠느냐?' 이럴 때는 그냥 안에서 빙긋 웃음이 날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이 배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사히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옛것처럼 무궁화꽃이 위성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뜰 때에 내가 그랬습니다. '허허, 이 마음공부들을 했으면, 들고고 내는 데에 저장처럼, 조그마한 덩어리 하나 더 달았으면 아예 그냥 제대로 될 건데 모자라는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위성이 지구 밖에서 돌아가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 한 거지, 딱 데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한 거지, 딱 데서 떨어지지 강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랐든지 내렸든지 간에 마음이 선정이죠.

여러분의 차원을 셋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를 지금 간곡히 관(觀)하고 들어가는 사람, 관하고 들어가서 나를 탄생시킨 사람, 그 다음에 탄생을 시켜 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점수(漸修)로 들어간 사람,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 하면, 그 첫 단계에 있는 모든 분은 위 단계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냥 따라서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부터 아주 안전하게 해 놓아야 되니까요. 위성이 지구를 벗어나서 그렇게 들떠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지금 마음이 우리 몸뚱이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없는 대기권 바깥으로 다닐 수 있는 건 마음뿐이에요. 물체는 공기가 없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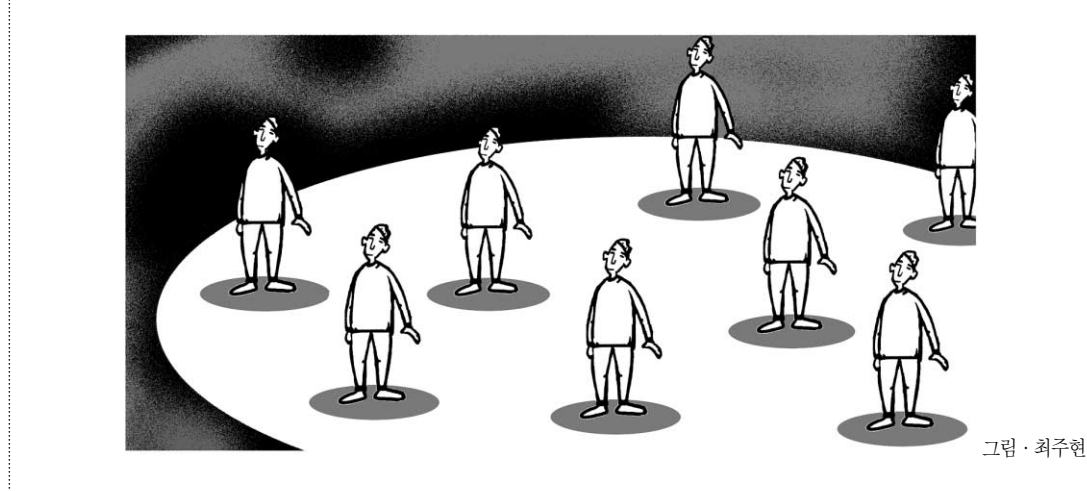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한 숨구멍이듯
마음이 들고 나는
자리도 딱 하나!
”

면서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이거든요. 바로 자기 조상이죠. 그래서 자기 조상 자체가 바로 공했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소박한 마음과 나의 조상, 즉 말하자면 주인공이 동시에 일체불의 마음과 더불어 같다 이거죠. 따로따로 떼어놓고 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깨우치지 못할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작으나 크나 똑같습니다. 내 집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지 내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속에는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누적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가지만 얘기하다가 말았죠. 우리는 수없이 과거로 해서 미래로 해서 현재로 다시 들어오고, 또 들어서 다시 들어오고, 또 들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 똑같이 돌아오긴 하는데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천차만별의 마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대로 모습을 쓰고 나오니까요. 이것을 기필코 우리가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되겠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몸속에 다섯 가지가 주둔하면서 세계가 벌어져 있습니다. 지구에 세계가 있듯이 한 몸뚱이 속에 세계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주동자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섯 가지가 의식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은 한 길이지만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과, 보고 들어서 그냥 생각이 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때로는 육구 불만도 나오고 때로는 욕망, 어떤 때는 욕심 이런 게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라, 한번 글러서 놓고 침착하게 대처를 해라 이러

하지 않았어도 꼭 그것이 자식들한테로 대치가 되거든요. 그거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균성의 원리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세균성이 오는 거죠. 그게 그냥 착 와서 '내 자식들을 모두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좀 때 봐라.' 하고 여지없이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없어요. 절대로.

또 영계성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속에도 이런 문제가 다 주둔해 있는데다가, 나에게 주인이 없다면 바깥에서도 마구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주인으로 삼아서 다스려 나가지 않는다면 주인이 없는 집이 되죠. 바깥으로 찾고, 바깥으로 매달리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바깥으로 삼천 배 절하고, 모든 걸 바깥으로만 하니까요. 자기 안에 주장자가 본래 있는 건데, 자기가 그것을 세워 놓지 않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집이 돼서 안에서 마구 끌어들이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것도 끌어들이고 안에서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마치, 엄마와 아버지가 어디 나가면서 애들에

도 딱 하나죠.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한 공전 가운데 털구멍에, 털구멍 가운데서 보살을 낳고, 털구멍 가운데서 모든 세계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보성' 하면 오간 지속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원이 낮고 낮아지면 인간에서 좌천이 되는 거죠. 인간에서 좌천이 돼서 기어다니는 벌레로 땅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오간지옥이예요. 무당들이 칼을 들고 바가지에서 죽은 것을 던지면서 하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허허하... '이걸 먹고 꼭 물러나라.' 그렇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내 법내도 못 맞게 지속성 애다 넣는다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이거는 인간이 왜야 국내 법내를 따지 땅속에서 사는 벌레가 어떻게 국내 법내를 따지겠습니까? 만약에 땅속으로 다니고 굴속에서 살고 그러는 살모사나 뱀 종류라든가 벌레 종류라든가 이런 거라면 국내 법내도 못 따죠. 그게 바로 오간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단코 붙어 들어가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칼로 찔어도 찔어지지 않고, 아주 굳세고 아주 نرم하고 그 여려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누구도 건드리

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름이 부처라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모두 주둔해 있는 것을 어디 가서 빌고 어디 가서 찾습니까? 어디 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오신통을 컴퓨터라고 해도 좋다고 내가 항상 말하죠. 앞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주둔해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대로 다시 입력해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만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업보성이러든가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인과성이 자체가 몸밖 차례차례로 나오는 것

만큼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험한 파도치는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감과 같다.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선정이 잘 이끌고 가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던 안에 있는 중생들이 다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 하고 안에서 뛰면은 바깥에서도 뛰고, 바깥에서 뛰면 안에서도 뛰던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뒤집히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배가 몸뚱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분들은 파도가 치



그림 · 최주현

게 '갔다 올 때까지 놀아라.' 하니까 친구들 떠러게 그냥 막 뛰어 놓고 온통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내려오면서, 지금 백팔 열주에 열주알을 꿰어 놓은 것처럼 자기의 그 중자가 종자대로 그렇게 꿰어 있죠. 이 세상 이치도 우주 전체를 열주알 꿰 놓은 것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불만도 나오고 때로는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끊어

“
진짜로 믿고 마음을
조금하게 두지 말고
안되든 되든 일단 말렸으면
그냥 던져두는 거죠!
”

면 하지만, 물체가 아닌 마음은 이 우주 삼세대를 다 한 찰나에 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그뿐 아니에요. 전체를 갖다 놓고 보는 것이, 공 하나 갖다가 놓고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거예요. 전체를 갖다 놓고 볼 수 있어도 도가 아니리라 했어요. 꼭마를 때 물 한 모금 주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리죠. 보는 것이 무슨 도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저 위성을 만들려면 일 단계, 이 단계 걸썩대기를 만드는 것과 같이 그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지, 오신통이 니 뭐니, 이것도 종합해서 하는 거지 모두가 혼자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보는 거, 듣는 거, 상태를 아는 거, 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 또 내가 가고 옴이 없이 이렇게 가고 오고 보고 이러한 것이 종합돼야 한몸이라고 할 수 있죠. 한몸! 정상인!

그렇듯이 그 정상인 하나를 정상인답게 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지구 바깥을 벗어나서 돌거나, 아니 다른 행성에 가서도 돌고, 다른 행성이 만약 우리 지구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 하면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풀이 아니게 만 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평등공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평등공법하면서 도 중용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름이 주어지지만, 하여튼 모두 그 안에, 보고 듣고 하는 그 안에 진짜는 들어 있으니까요. 보고 들었으면 주야라, 보고 들었으면 결정을 지어라, 보고 들었으면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잘 되고가 알아진다. '수습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러

한번 굴러서 놓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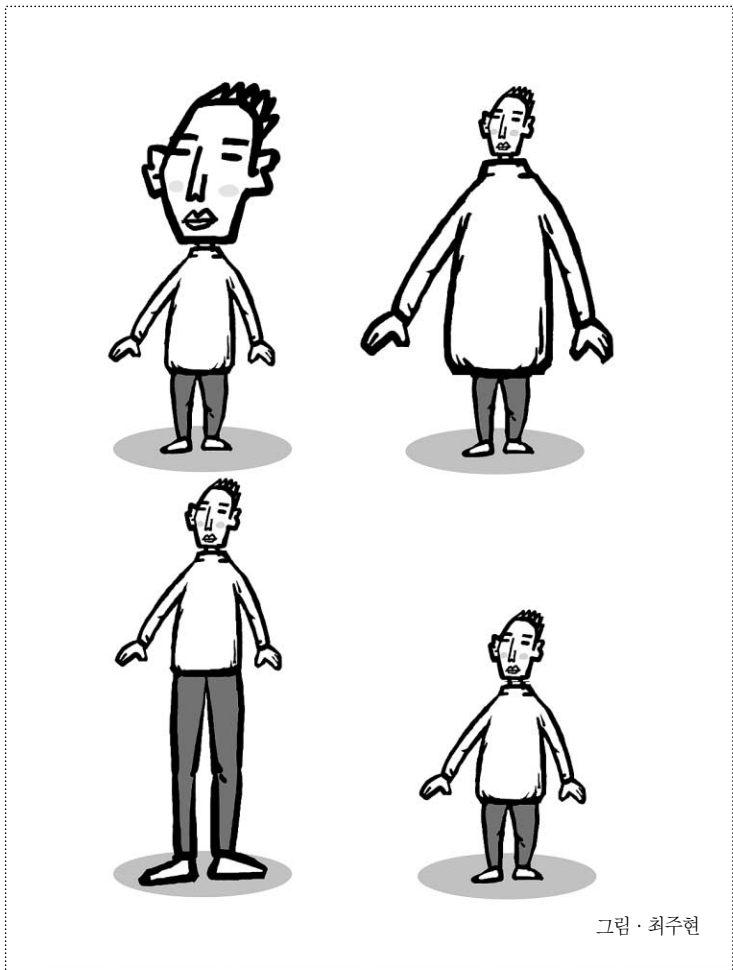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니가 부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말해 줄 사람한테 말해 주고, 그냥 건져 줄 사람은 건져 주고, 예전에는 양을 많이 잡아서 바쳤답니다. 양을 바치려고 풀어지고 갈 때는 양을 건져 주고, 소가 죽을 때는 소를 건지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눈에 걸렸다면 그런 인도환생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중에 '더운데 시원한 데로 놀러가지, 왜 내가 거기 가서 끼어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왜냐하면요, 내가 지내보니까, 더운데 더운 데로 추운데 추운 데로, 또는 적으면 적은 데로 많으면 많은 데로, 누가 주면 주는 대로, 끌어다가 먹지도 않고 나한테 온 거 박아서 내버리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모든 점에 있어서 순리적으로, 일체를 합류화

해서 항상 모두를 내 스승으로 보고, 내 아들로 보고, 내 몸동자로 본다면 그게 잘못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몸을 변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는 키가 모자라서 못 먹을 때는 키를 키우고, 다리가 모자랄 때는 다리를 키우고, 배가 곱을 때는 배를 크게 해서 자기 소관대로 자유롭게 몸통이 될 만들어서 사는데요. 그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화력이라는 게 그렇게 한생각으로 진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몸 자체도 개선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믿는 것 같습니다. 믿는 것은 아픈 것을 나를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죽을 걸 살 양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업보를 제거하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 세상에 왔으니 까 그대로 자기를 믿으라는 거죠. 자기 시자는 자기 주인을 믿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버지가 나

쁘든 좋은 아버지이듯이, 어머니가 못났든 잘못든 못 배웠든 병신이든 내 어머니이듯 그냥 무조건, 무조건 믿는 그 속에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거는 다 대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믿지는 않고 이름만 부르면서 한 가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은 그런 참 더디죠. 앞에 닦힌 것을 어찌했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믿고 마음을 조급하게 두지 말아야죠. 안 되든 되든 일단 맡겼으면 그냥 던져 두는 거죠.

어떤 스님이 사갓을 쓰고 주장자를 짚고선 물을 건너가는데 아, 어느 마을에 불이 나서 그냥 막 타오르고 아우성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통이가 뛰는 게 없이 주장자를 물에다가 찍어 치니까, 그 물이 구름으로 화(化)해서 전부 비로 내리더라고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니 불이 그냥 단번에 꺼지더라고요. 그쯤은 돼야죠. 허허허...

그러나 몸통이가 아무리 뛰어 봤자 벼룩입니다. 저 허공에서 비행기가 잘못해서 죽는다고 해 보세요. 몸통이가 아무리 뛰다 하더라도 그걸로 해결할 수가 있나요?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죠. 어느 스님이 가만히 보니 비행기 조종사가 몸이 불편해서 술 한 잔을 마셨는데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 조종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조종사 속으로 들어가서는 '정신 차려!' 그러고는 딱 짚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야 단났거든요. 그래, 그냥 수습을 한 거죠. 비틀비틀 하면서 수습을 해 가지고 랜잡았답니다. 그런 예도 있었어요.

그냥 좋고 삼아, 남들도 점에 다니니까 나도 다녀보자 이라고 그냥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화를 필수적으로 쓰듯이, 밥을 필수적으로 먹듯이,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게 내 탓이고 남의 탓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가 있고, 내가 변소 간열 가든지, 통곡간열 가든지, 허허허... 풍 재어 놓는 데 있죠? 그런 뉘 가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는 있는 것이지 깨끗한 데를 찾아서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 질문자: 여름철에 살다 보면 집안에 각종 벌레, 해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죽어 있는 것을 먹거나 버릴 때는 뭐 '한마음!' 하면서 관할 수 있었는데, 살아 있는 놈을 귀찮다고 '한마음!' 하면서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공부와 관련하여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스님: 살아 있는 걸 죽인다 할 때 거기는 죽이는 사람의 차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갓 배우는 사람한테는 '살생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나 다 배운 사람 앞에는 '무조건 먹어치워라' 이겁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거기는 왜냐? 그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고생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다 깨우친 어떠한 스님이, 부처님께서... 스님이

부처고 부처가 스님이나니까요. 만약에 수많은 벌레들을 다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살생이라고 보겠습니까? 죽여도 건진 거고 살려도 건진 거고, 죽도 건진 거고 안 죽도 건진 거고, 건져주요.

▲ 질문자: 다음에는 정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에 스님께서 저녁 때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자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을 제대로 살면 하루를 제대로 살게 되겠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반성하고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 공부에 관해서 정전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스님: 그냥 생활선생(生活禪)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모든 것을 그냥, 내 주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해라, 이런 것이 참선입니다. 그대로 참선이예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여건에서

그렇게 반영하고 자꾸 그대로 하지 말고 한번 굴러서 놓고, 그 마음이 분기해서 탁 나오더라도 안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라 이거야.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나 내 생각으로써 나의 기준으로써 상대방을 삼지 말고, 한번 내가 상대방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돼 봐라 이거죠. 그러면 그 승상이 차차 차차 없어지고, 그리고 등글어지고 물로 보지 않게 되고, 그래야 빨리 그 몸통 안에서 벗어날 수 있죠. 몸통을 그냥 툴이라고 하죠.

▲ 질문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조그맣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떤 땐 일감이 좀 적게 들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은 안 먹고 '저 일감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깐 너희들이 나가서 더 벌어들이 오든지 일을 더 많이 하든지 하라.' 그러고서 어떤 땐 굶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공부와 관련하여 내면과의 대화가 되는 것인지 아나면...

▲ 스님: 만약에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어

나의 기준으로 잣대를 삼지 말고

상대방 안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돼 봐야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발견을 못했으면 진짜 공부를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저녁에 남이 다 자고 조용한 틈을 타서 한 30분이라도 앉아서 '당신이 있다는 것을 당신만이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해 주느냐?' 이거야. 그것이 똑바로, 직속 들어가는 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 못했을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살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한해선 특히 더하고, 스님네들도 역시 그렇구요. 우리가 이 도리를 발견하려면요, 첫째는 다섯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다 거기서 나오고 벗어지는 거거든요. 뭐, 관음이라든가 승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굴러서 놓아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예전에 살던 다 떨어지지 못하면,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하거든요. 그럴 한번 굴러서 못하고 그러니까 그 승상이 다 떨어지지 못하면 인정을 못 해요. 하늘에서, 한을 중심에서 인정을 못한다 말입니다. 열쇠를 받지 못해요. 그걸 해인(海印)이라고 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통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인과의 승상, 인연들과 살던 그 승상을 그대로

요. '점심을 먹게 하는 것도 너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알아서 해.' 그게 배우는 과정에서 특특한 맛이 나는 도리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됐으면 '어, 굶어라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먹게 되면 감사하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안되고 되고 되고 안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그냥 막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한참 돌아가야 뭐가 되는 거지 그게...

하러온 내가 짐작하던대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때에 모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고기들이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인간도 공기중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듯 그렇게 뱀뱀 뱀뱀, 죽어도 또 거기, 죽어도 또 거기, 이걸로 저걸로 모습을 달리 해 가지고 나오면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살아서 내 몸통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어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더운데 더운 데로 추운데 추운 데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데로 그냥 '네놈이 알아서 해, 난 너의 심부름이나 할 거야.' 하고 그냥 뉘! 말입니다.

*위 법문은 1995년 8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얹하십니다.

스님? 세상에
서 제일 고통스럽고
잡기 어려운것이 이거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
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
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
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
큰이도 흔들리며 잔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
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거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
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뒤으면 이거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아가지고 뉘가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었는데
부터 진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잔물을 먹어도 이거 시림이 없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안내
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룩, 잇몸농종, 잔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느낄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약을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원관매점 **금강달터사**
TEL: (02)2271-1441 동협: 360-12-046446 최능우

天地運氣 通達 神法

◆ 수맥, 생기, 사기, 혈자리, 좌향, 예언 감별법

- 사람의 일생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고 예언하는법
- 양택(집터) 감정과 좌향 혈자리 잡는법
- 음택(묘터) 감정과 좌향 혈자리와 생기사기 수맥, 짚고 늪은이와 남과 여를 묘만보고 시신을 보는법
- 황천살과 팔호황천살을 양택, 음택에서 보는법
- 병의된 영가를 보는법과 병든 환자를 찾아내는법
- 비보와 비기로 양택 음택을 명당으로 돌리는법
- 성명 작명법

멀서서 원격으로 가보지 않고도 수맥과 생기 사기 황천살 등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으며 음택인 경우 자신에게 어떠한 화가 미치며 양택은 본인과 가족에게 화는 어떻게 끼치는가를 알 수 있으며 그것을 방편을 세워 차단하는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 강의시간: 8월 23일 오후 5시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무교육 숙식제공: 보시금 삼백오십만원 (예약전환 외 사절 / 선착순 10명, 예외 안입금) 동협 4571 09-52-098389 홍정순

■ 찾아 오시는 길: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허차(신풍면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 천제 불국사 의성 합창

전화 041)855-7114, 016-663-2159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벤치탁자

◆ 평상 1500 * 820 * 400 (mm) 가격:150,000 할인가:130,000
1800 * 1030 * 480 (mm) 가격:220,000 할인가:190,000

◆ 벤치탁자 set 1500 * 1700 * 750 (mm) 가격:420,000 할인가:370,000

갈라지거나 타짐이 전에 없고 주기적 도배나 관리가 필요 없이 반영구적이며
벽이 폭박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목장, 기동, 휴양림, 예수목장, 양말, 관광 등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제품.)

도정사설문 전문업체 **지구산업** TEL: (063) 323-3010-1 FAX: (063) 323-3012
http://상록산원대.com

계좌번호: [동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전화주문서 무료배송 지역대리점 모집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기초과정
• 고급과정 ① 맥진반 ② 사암침술반 ③ 즉효요법반

▶ 내용: 12경락과 경구,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배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2005. 9. 5
월·화·수·목·금·토·일(주·야간: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자로 변모와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만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9월 5일 개강

사암침술 학회

• 서울: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희암빌딩 402호)
문의: 02)2267-9136, 011-307-2975
• 부산: 부산 동구 좌천동 567-2 디전리치원 1004호 (좌천역 1번 출구)
문의: 018-312-7110